

【청해문화 제27호 발간】

축 사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결심한 생각처럼 항상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내는 결실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완도문화원에서 한해의 결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완도문화인들의 활동상을 엮어 청해문화 제27호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우리군 향토문화유산의 지표가 되는 청해문화 발간에 애써 주신 완도문화원 정영래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완도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청해문화지는 군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인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탐구하고 재조명하면서 출향작가와 향토작가의 글과 시, 그림, 서예, 서각 작품 등을 통해 완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완도군 지역문화 활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계승발전은 경제성장 발전 못지않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드높이고 우리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옥같은 문화유산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완도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완도군의회 의장 조인호

